

나의 열일곱과 너희들의 열일곱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는 교직원의 촌지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던 시기였다.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지금이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만 해도 '성의 표시'가 당연히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특히나 촌지 문화가 횡행하던 부모님 세대에서는 '교사 5년 하고 집을 못 사면 바보'라는 말이 있었으니 말이다.

현장 체험이 있는 날이면 반장의 부모님이 선생님의 도시락과 간식을 챙겼고, 스승의 날이면 돈을 걸어 선생님께 선물과 꽃을 드리고 파티를 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이런 '관례'에 대해 불만은 없었다. 부담은 있었다. 그러나 그 화살은 부패한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끌어안았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해서!'

'저 녀석은 뭐 하러 반장에 나가서!'

사실 국공립 학교에 다녔던 어린 나에게는 이런 일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 세대로 오면서 촌지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였다. 돌이켜 보면 이것도 부당한 일이었지 싶은 것들은 있었지만, 큰돈이 오가는 문제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곧바로 깨졌다. 고등학교 시절 부반장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이번 학부모 참관 수업에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이 꼭 와야 한다며 강경하게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내 대

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려고 그러시나 생각해서 별생각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하루 연차를 내고 학교에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내게 해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반장과 부반장 엄마들을 교장실로 불러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각자 50만 원씩 학부모회장에게 내시면 됩니다. 모인 돈은 학교 관리와 행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우리는 10반까지 있었으니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학교는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리 반장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께 물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래도 돼?”

“몇 반인지 누구 엄마인지 다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대를 하니. 엄마가 그 돈 못 내겠다고 하면 네가 피해를 볼 텐데.”

그렇다. 퇴직하지 않는 한 교사가 바뀌지도 않는 것이 사립 고등학교다. 대학교 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일을 크게 만드느니 그깟 50만 원은 그냥 낼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집 가정 상황이었고 우리 반 반장은 달랐다. 막내인 나와 달리 반장은 아직 어린 동생들도 있었고 문제집도 마련하기 힘들어 교무실에서 남는 문제집을 받아 오는 형편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속상해했고 나 또한 공감했다.

반장은 나와 다른 반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무산됐다.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아이들과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좋은 말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잡음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급 임원이 아닌 일반 학우들은 굳이 이 일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학교가 아닌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50만 원도 못 내? 그냥 좀 내면 안 돼?”

“너는 호구처럼 내고 살든가.”

돈을 받는 이는 학교인데 우리는 서로를 비겁자와 가난뱅이로 편을 갈라 싸웠다.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쪽은 확연히 드러났다. 길어지는 다툼에 지친 학생들은 우리 반에 짜증을 내보였다.

비단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차마 교육자로서 돈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못했고, 위로부터는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선생 반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쓴소리를 들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느꼈다.

‘그냥 좀 내지.’

나는 학창 시절 내내 교대를 지망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진로가 바뀌었다. 교사가 되어 이런 문제에 또다시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미래의 내 모습을 투영했다.

‘내가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생활기록부 걱정에 아무것도 못 하고 말로만 반장을 응원한다는 나와 임용에 문제가

될까 입을 다무는 선생님이 뭐가 다를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이던 아이들과 촌지 문화에서 자랐던 학부모들, 기간제 교사였던 담임, 관행대로 하겠다는 학교. 사실상 일대 다수의 싸움이었다. 나 또한 반장의 편을 들면서도 이미 어머니가 돈을 내버린 상태라 돈을 내지 않은 학생은 반장 한 명뿐이었다. 결국,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걱정한 반장의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 오면서 이 일은 끝이 났다.

학교의 부정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겼다. 담임 선생님은 권위를 잃었고 반장은 자존심을 잃었으며 친구들은 우정을 잃었다. 반 분위기는 1년 내내 싸늘했다.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돈을 내서 학급 임원들이 특별히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었다거나, 학교생활이 편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학교는 그저 늘 받던 것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씩씩한 기억을 가지고 졸업한 지 2년 후 그 일이 거의 잊힐 무렵,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가 모교의 소식을 알려왔다.

“선배, 이번 1학년들 장난 아니에요. 교육청에도 신고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알렸대요.” 정확하게는 학교 교칙 중에 학생 인권에 반하는 조항이 있어 신고했는데 감사가 나오자 누군가 돈을 걷는 관행까지 제기하며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관행은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조용히 덮었다고도 전해 주었다.

“저는 반장도 아니었어서 몰랐어요. 선배 때도 돈 걷었어요?”

여기에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의 욕을 시원

하게 했던 듯도 싶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듯도 싶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난다. 얼떨떨했다는 것. 그게 정말 사라졌다고? 그리고 다음 해 9월 즈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나는 믿기로 했다. 이제 그 관행은 학생들을 괴롭힐 수 없겠구나, 하고.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학교'의 입장이 되는 순간들이 생겼다. 관행이고,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끝날 악습. 나에게 생기는 이득은 쓸쓸한 정도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들. 그냥 내가 한 번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가끔 유혹이 밀려올 때면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나를 억지로 들춰낸다. 그 시절 치졸한 괴롭힘이 동반된 부정부패는 예민하고 어렸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 버렸고 남은 것은 정의할 수 없는 상실감이다. 그것이 어른들에 대한 신뢰였을지, 내 오랜 꿈이던 교직 생활에 대한 환상이었을지. 혹은 나보다 몇 살은 어린 1학년들이 가져간, 그 시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권리일지.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안의 열일곱 살은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단호하다. 유연하게 관행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압박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고집불통. 그러면 나는 고민하다가도 기꺼이 이 열일곱 살의 손을 들어 준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열일곱 살은 이제야 웃는다. 그 시절 우리의 눈을 피하던 어른들이 아닌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고 간다. 어떤 곳에서는 청렴함이 필수적으로, 강박적으로라도 요구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영혼을 키우는 곳이다. 그렇기에 나는 세상 안에 갇혀 있던 열일곱 살의 나에게 보여 준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 나 때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더라도 참지 않는 어린 학생과 불합리

함을 받아들이고 힘을 보태 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청렴함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지 않는 어른들이 있어 오늘도 너의 열일곱과 나의 열일곱은 다르다.